

바리새인의 누룩,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(눅 12:1-5)

I. [지난 메세지]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시작되는 파도 (계 15:2-4) – Part 2

- A. 성도들은 마지막 때의 파도에 휩쓸려 가는 자들이 아닌, 하나님의 파도와 함께 이를 선포하며 능력으로 일어날 자들이다 (계 10:9-10; 11:3-5; 암 3:7; 행 2:14-31; 4:4). 우리는 마지막 때에 대해 기록된 예배와 말씀, 기도의 파도에 함께 동참하여 일어나서, 이 땅에서 **예배의 회복, 말씀의 회복, 기도의 회복**을 감당하는 교회로서의 부르심을 섬겨 나가야 한다.

²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 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다 가에 서서 하나님의 거문고를 가지고 ³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,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(계 15:2-3)

II. 하나님 눈 앞에서 사는 삶

- A. 오늘의 본문은 예수님께서 페레아(Perea)라는 지역에서 전하신 말씀이며, 이 지역은 세레 요한이 세레를 베푼 곳으로 지금의 요단강 서안 지구이다. 누가복음 12장의 말씀은 산상수훈(마 5-7) 말씀과 유사해 보이지만, 학자들은 예수님께서 산상 수훈과 유사한 말씀을 공생애 사역 중 여러 번 전하신 것으로 보고 있다. 이 때는 예수님께서 3년의 갈릴리 사역을 마치고,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기 전의 타이밍이다.

¹ 그 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(눅 12:1)

- B. **무리 수만 명이 모여 ...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:** 이제 예수님 앞에는 셀 수도 없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고, 그 수가 수천 명의 수준을 넘어선 것으로 보인다 (수만 명, 남성의 숫자만). 예수님께서 공생애 사역의 후반부로 가면서 더욱 더 제자들에게 집중하여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으며, 여기서도 많은 군중들이 모여든 상황에서 제자들에게 먼저 말씀하신다.
- C. **바리새인들의 누룩:**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“누룩”을 두 가지 용도의 비유에서 사용하신다. 어떤 때에는 겨자씨가 커져서 나무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크게 확장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 누룩이 부푸는 것을 비유로 사용하셨고 (마 13:33), 다른 때에는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는 것처럼 잘못된 가르침과 삶의 모습이 전체에 영향을 끼치는 부정적인 현상에 대해 설명하시기 위해 이를 비유로 사용하셨다 (마 16:6; 마 16:11-12; 막 8:15; 눅 12:1; 참고. 고전 5:9; 갈 5:6)

웹에서는 1페이지까지만 공개됩니다.